

■ 광주 온 민주통합당 대권주자 손학규 상임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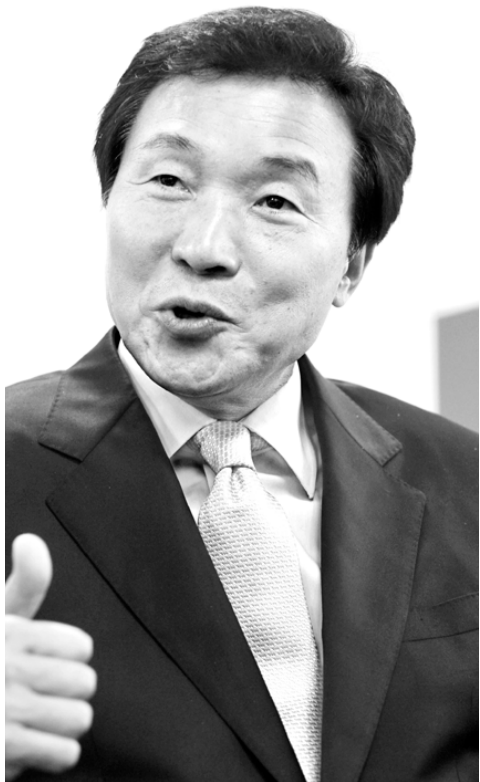
“콘텐츠 정치로 승부.. 당내 경선 자신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광주정신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를 찾은 손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이미지가 아닌 콘텐츠로, 지역구도가 아닌 인물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안정감 있게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자신이 이번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친노 진영을 상대로 대선을 치르고 싶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지역구도보다는 사회갈등과 양극화 구도를 해소하는 데 핵심이 있다”며



갈등·양극화 해소 “내가 책임”

지지를 정체 걱정 안한다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정치적으로는 중도세력을 얼마나 더 끌어들이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의원의 안철수 원장과의 공동 정부론에 대한 견해는

▲우선 제1야당의 후보가 밖에 힘을 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특히 1987년 이래 통합을 통해 최대 단일 야당을 만들었다. 그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제가 우리 당을 이끌어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능력과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는 데 선거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누구의 힘을 빌리겠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능력을 키우고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런 뒤 민주당으로는 힘들다고 하면 그때 가서 연대 등의 논의를 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와 김두관 경남지사가 친노 탈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탕으로 출발하거나 할 예정인데 친노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 중 좋은 것만 가져려고 한다면 안 된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와 종북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로 전국이 시끄럽다. 통합진보당이 제대로 된 진보이념을 갖고 쇄신을 해야 한다. 종파·패권·사회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포기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하는, 껍데기만 진보인 당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 표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적·도덕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만이다. 먼저, 그 껍데기를 벗고 쇄신을 해야 한다.

-지자들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회복 방안은. ▲이번 경선에서 이미지와 지역구도가 중요하지만 경선이 시작되면 콘텐츠와 인물론으로 흐를 것이다. 특히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복지·경제민주화가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삶의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은 복지와

안정된 복지·경제 민주화로 중산층·중도세력 아우를 것

경제민주화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하게 될 것이고, 그때 손학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과 당원은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미지 정치가 판을 휩쓸고 있지만, 결국 이미지 대 콘텐츠의 대결이 될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체험학습을 온 용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5·18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권자·후보자 매수 징역형

대법원 양형위, 주폭도 가중처벌 근거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전례회의를 열어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도 특별한 감

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양형위는 의견조화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20일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11 총선에서 적한 매수는 감경을 하더라도 8월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는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상대후보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대중적

파급력이 큰 인터넷·SNS 이용 불법 행위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의 경우 일반인 범행보다 후보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더 엄하게 처벌한다.

양형위는 또 만취상태에서 상습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서도 만취상태 감경을 제한하거나 그 자체를 가중근거로 반영하는 내용을 명백히 규정해 엄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색다른 볼거리 ‘여수월드컵’ 열린다



16개국 ‘엑스포 2012 축구대회’ 우루과이·독일·스페인 등 참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여수월드컵’이 열리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18일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16개국 국가관 관계자들이 모여 ‘엑스포 2012 축구대회’를 열어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를 포함한 16개 국가관을

가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에 펼쳐진 스페인관과 우루과이관의 경기에서 축구 강국인 두 나라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경기와 열띤 응원을 펼쳐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루과이는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스페인과의 결과 경기는 4대 4 동점으로 마무리 됐다.

우루과이 관의 부대표인 마르타 파시오티는 “남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도 국제관들은 물론 관람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할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임원택기자 mtim@

佛 거리에술극단

‘일로토포’ 한국 초연

프랑스 대표 거리에술극단 ‘일로토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국내 첫 공연을 펼친다. 18일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거리에술극단으로 평가받는 ‘일로토포’가 이번 박람회 위해 새로 제작한 ‘오션 오페라’를 오는 20일부터 10일간 빅오 해상무대에서 선보인다.

‘물 위의 광인들’ ‘색깔 있는 사람들’ 등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일로토포는 런던 탭즈 페스티벌,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등 세계 곳곳 축제와 행사에 초청을 받는 등 세계 정상급 거리에술극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오늘의 여수엑스포. 세계 각국의 문화와 첨단 기술을 둘러봤다면, 이제 국내 지자체에도 눈을 돌려보자. 오늘 지자체의 날에는 진도군이 초대됐다. 진도군 문화공연에서는 한과 설움이 빛나는 절창, 진도아리랑과 다양한 남도민요를 들려준다.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돼 노래를 따라 부르며 남도의 흥겨운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최상의대출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기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합)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구주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합) ■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용도:지면:농지 \*용도:주거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량채용가능지역 광주시 내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92천 매도 89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 45억 보증금 6억 임대료 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입자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안료, 매대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청 참고용도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2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함평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편빌딩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설투자와 연일식 분 손님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0223-1772, 011-0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정리역내)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대환영! (매수자 다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전남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림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에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분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분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우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면적 400평(31억) 임대보증금 95억 월 1,5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용가능,시영영양중) ■ (상무지구)1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시가리크네)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용가능) ■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영양) (회사서옥,오피스빌등 적합) ■ 동림지구중주거지 운암-하남 간대로면,4,470㎡(약1,352평) -평당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3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일차점 1층)

상가/원룸 매매. ▶총합계: 보증금 4,500만원 월세 800만 ▶1층원룸 원룸 21개, 투룸 4개 ▶토지면적: 330.58㎡(100P) ▶건축면적: 737.19㎡(223P) ▶매가가 7944천만 (용지 2억4천4백 포함) 보증금 4천5백만, 월세 8백만원 용지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4억5천 원수익 678만원 연수익을 18%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해서만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011-684-3886 오피스텔 매매. ▶총합계: 보증금 8,250만원 월세 1,425만 ▶지하 현대문선시점 1 ▶사무실 1, 10평 27.11평 67, 13평 4 ▶토지면적: 509.09㎡(154P) ▶건축면적: 1375.21㎡(416P) ▶매가가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억 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투자금 6억9천7백만원으로 월세 1,425만원에서 대출금이자 6% 250만원을 공제하면 월수익 1,175만원으로 연투자수익 20%로 아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011-684-3886